

95년 세계여성대회 여성계 준비 활발

민간단체들 한자리 모여 연대 다짐 '비정부기구 준비모임' 등 본격 추진

오는 95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위한 여성계의 준비작업이 활발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문직여성클럽, 유권자연맹, 통일여성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20일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비정부기구위원회 준비모임'을 만들고, 2년 뒤 베이징에서 열릴 세계여성회의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유엔은 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뒤 80년 코펜하겐, 85년 나이로비에서 여성의 지위와 문제를 점검하고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세계규모의 여성회의를 열어왔다. '여성의 해' 선포 뒤 20년을 맞는 95년에 유엔은 베이징에서 다시 이러한 여성회의를 마련하는

것이다.

20일 준비모임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이른 시일 안에 '세계여성회의를 위해 비정부기구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정부가 세계여성회의에 파견할 국가위원회에 비정부기구위원회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에서 연말까지 완성할 '나이로비 발전전략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여성계가 보는 여성문제 해결과제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문직여성클럽 박영혜 회장은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타이에서 열릴 예정인 아·태지역 비정부기구위원회와 11월 필리핀에서 열릴 세계여성회의 준비회의 등에 준비모임 대표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여성단체가 중심이 될 비정부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정자 원장은 "최근 들어 유엔 관련 각종 회의에서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중요해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중간 입장에서 비정부기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여성계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겠다"고 밝혔다.

유엔은 여성문제를 다룰 때 물론 정부 차원의 협력을 중요시하지만 각국 정부에서 내놓는 국가보고서에 홍보 차원의 내용이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 개최 전에 '비정부기구 포럼'을 정례화하는 등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제기된 선언문을 본회의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최근의 두드러진 추세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필리핀과 공동 주최한 정신대문제 포럼에서 채택한 선언문을 본회의에서 일부 수용한 것(여성에 대한 성침해를 현재적 사건뿐 아니라 모든 성침해로 인정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번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의 주제는 '여성의 평등·평화·발전'으로,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여성발전 전략 3백72개 과제'에 대한 각 나라의 이행 정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은 95년까지 고위정책결정직에 여성참여율을 3

0%로 끌어올리고, 빈곤·난민·농촌여성 등 소외계층의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민간여성단체들이 연대해 나이로비 발전 전략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여성계는 보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회 신혜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산적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계가 연대해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과 계획·전략을 파악하고 △나이로비 발전 전략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여성발전 추약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 촉구 등 압력단체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연숙 기자**



지난 15일 여성개발원에서 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 대비해 국내 여성계가 모여 비정부기구 준비모임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중인 여성단체 대표들.